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탐색

-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Libraries through Library Cultural Program: Focused on Eco Generation

이 경 아 (KyungAh Lee)*

김 기 영 (Giyeo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분석 및 논의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고찰 |
| 3. 연구 설계 | |

초 록

본 연구는 에코 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 및 인식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코 세대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및 그 분석을 통해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기저에서 드러나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프로그램 비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능성 높은 원인으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도서관 정체성의 결여가 지목되었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의 도서관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협력, 지역 내 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정책관점에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Eco-generation's perception on public libraries depending on the use of cultural programs. For this purpose,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with public library users in the Eco-gener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and their underlying identity. The results identify that user experience of library cultural programs did not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in users' perceptions on public libraries. Furthermore,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n cultural programs between public libraries and other cultural organizations. A possible explaining factor to the results based on the interviews and existing research reports was identified as the lack of identity in the library cultural programs. Consequently, further studies on public libraries' identity,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n public libraries, discussion with cultural organizations in the library district, and considerations in public policy are sugges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identity in the library cultural programs.

키워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비이용자, 이용자, 에코 세대, 인식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 Non-user, User, Eco-generation, Perception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kyungah.lee@yonsei.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kim@yonsei.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8년 8월 4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8월 2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335-361,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335]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도서관법 제28조, 법률 제 15167호). 이중 문화적 기능은 '강연회와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 등의 문화프로그램으로 구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의 일반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동법 제 43조 2항)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는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통한 공동체 소통을 강화하고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포괄하는 문화프로그램 확충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의미함) 문화프로그램은 2009년 63,118건에서 2016년 93,224건으로 집계되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화관광체육부 2017).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육성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단순히 양적 증가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곽동철 2005; 감미아, 이지연 2013; 윤희운 2016)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장서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사서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도서관 고유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난점 또한 논의된 바 있다(황금숙 외 2008; 장덕현 2014; 박래은 2016). 더욱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이 도서관 이용자 중 주부, 아동, 노약자 등 특정 계층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으로 비이용자를 포함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포괄하여 성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및 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파악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찾기 어려운 청장년층인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프로그램 이용과 인식,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도서관과 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포괄한 시민의 인식 기저에서 드러나는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RQ.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는 각각 공공도서관에 대한 어떤 요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문헌 연구 및 비구조화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한 질적 연구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했다. 이러한 접근은 한 편으로 심층면담이 연구대상자의 인식 탐색을 위한 가장 신뢰성 높고 효과적인 방법(Briggs 1986)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연구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으로서의 기존 연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 연구의 수적 문제이기보다는 연구방법과 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한 쪽으로는 개별 프로그램과 개별 기능에 중점을 둔 연구와 다른 한쪽으

로는 전반적인 개념적 논의가 중심이 된 연구 속에 이를 연결하는, 즉 개별 요소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이를 통한 개념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았던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현(現) 연구 지형도의 갭을 메꾸고자 함이 본 연구의 의도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업무(도서관법 제 28조)이자 조치(동법 제43조)이지만, 그 정의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동법 제28조 4항)가 문화프로그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역점을 둔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사서의 주도적인 기획과 역량 하에 제공되는 일련의 문화 서비스로 간주하였으며(김수경 2006; 박래은 2016) 사서의 주체성을 강조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에 따라 자료 중심 봉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을 총칭한다.

이러한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화프로그램의 목적을 개인의 지식을 넓히고, 교양을 높이며, 기

능을 신장시키는 한편, 도서관 자료의 활용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 예술, 독서, 주제별 강좌/행사, 교육강좌, 취미/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형식에 따라서는 특강/패널토론, 지도강좌, 워크숍, 시범강좌, 공연, 토론회, 그리고 영화상영(곽철완 외 2009)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문화와 독서라는 주제로 크게 구분하는 황금숙(2008)의 분류, 그리고 주제별·대상이용자별·운영 형식에 따른 이정미(2014)의 분류가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 이후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김은정 1995; 권남익 1996; 김도연 1998; 이경민 2003; 김홍렬 2004; 황금숙 외 2008; 곽철완 외 2009; 감미아, 이지연 2013),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맥락에서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심효정, 이용훈 2003; 이소연 2004; 박미영 2007; 장우권 2009), 문화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박은정 2000; 홍민희, 남태우 2004), 문화프로그램과 지역문화시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곽동철 2005; 홍희경 2008; 안인자, 박미영 2011), 문화프로그램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곽철완, 안인자, 김호연, 박미영 2009; 노동조, 송유안 2011)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존재 당위성 및 중요성을 전제로, 주로 이용자 계층과 지역별 구분에 따른 활성화 모색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논의와 동시에 문화프로그램

이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이용자 요구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양적 증가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광동철(2005)은 높은 평가결과와 상위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유사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이나 독서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양한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찬식(2008)은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대상 연구에서 도서관간 프로그램 제공의 양적 편차, 기획의 무방향성, 열악한 운영자원, 전문 인력 부족, 특성화 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감미아와 이지연(2013) 또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타 기관과의 프로그램 주제 중복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운용을 촉구했다. 한편, 윤희운(2016)은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인문학'을 주제로 내세운 문화프로그램이 본질적 정체성에 소홀한 채 인문학 대중화라는 시류에 편승하는 행태로 범람하면서 인문학 본령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타 연구(황금숙 등 2008; 최홍식, 서진순 2009; 장덕현 2014; 박래은 2016)에서도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장서 특화와 사서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노정되어 왔다.

2.2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기대 효용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공공성 차원에서 응당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도서관 이용자와 지

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지만, 이를 통해 도서관이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수혜적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혜택으로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와 여가를 즐길 기회 제공 및 시민들의 지식 함양을 통해 (Robotham and LaFleur 1976),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고(이혜운, 이지연 2014; 홍민희, 남태우 2004), 지역의 문화 수준을 향상하며(Johnson 2012), 지역의 시민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를 고무한다(Robertson 2005). 또한 이를 통해 도서관이 반사적으로 얻는 효과로는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이혜운, 이지연 2014; 조찬식 2008) 도서관과 시민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의 정보 활동을 촉진하는(Johnson 2012) 홍보와 마케팅 효과뿐만 아니라, 도서관 장서 확장의 효과와 다양한 매체 활용을 유도하는(Robotham and LaFleur 1976) 등 도서관 이용 패턴의 변화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도서관과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도서관의 지원 및 이익 증진에도 기여한다(Etter 1994). 이러한 효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기관의 행정가, 시민/납세자 그리고 기금 제공 기관에게 실행력을 입증하여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Rubin 1998).

박성우(2016)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파고들어 지역주민의 흥미와 참여를 끌어내는 문화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실행공동체를 추동했던 실증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서 주도로 조직되었던 성공 사례로서 네덜란드의 '성실한 독자(Stalwart Readers)'와 '위기 속의 지혜(Wisdom

in time of crisis)’라는 독서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사례는 지역주민의 단순 흥미뿐 아니라 지역에 관련된 화두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역(domain)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 매개자이자 리더로서 사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고 일정 기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실천(practice)을 시작하고 그를 위한 기반을 도서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실행공동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정책 주도 하에 이루어진 실행공동체의 성공 사례로서 미국도서관협회(ALA)가 2014년부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비영리기관인 ‘공공혁신을 위한 하우드 연구소(Harwood Institute for Public Innovation)’와 협력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LTC, 즉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를 언급하였다. LTC의 설립 취지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리더이자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서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프로그램 개념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10개 공공도서관을 선발하여 해당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을 대상으로 ‘LTC Public Innovators Cohort’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10개의 공공도서관 중 5개의 우수 사례(Columbus Public Library, Spokane County Library District, Hartford Public Library, Red Hook Public Library, Los Angeles Public Library)를 공표하였다. 상기

사례 모두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기대역할까지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및 잠재적 파급력까지 입증하였다.

Aabø와 Vårheim(2010)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문화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요구에 부응하며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즉,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문화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하여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박래은 2016).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그 취지에 맞게 제공되고 있다면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는 비이용자와 다르게 공공도서관을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개별 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문화프로그램과 연관된 개별 기능에 대한 인지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도서관과 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인식 및 태도의 수준까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개별 요소보다는 전반적 인식을 탐색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에코 세대, 즉 2018년 현재 기준 평균연령 30대에 속하는 청년 시민이다. 통계청(2012) 분류 기준으로 에코 세대는 1979~1992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 집단으로 2018년 올해를 기준으로 만 39부터 26세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은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참여가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에코 세대에 해당하는 문화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표집은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총 11명 모집하였다. 표본 집단은 공공도서관 이용자이며 문화프로그램 경험(1회 이상 참여)을 기준으로 이용자/비이용자를 구분하였다. 표본의 거주 지역은 자료 분석이 특정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도권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표본집단 11인을 대상으로 개별 비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일반적으로 인류학자와 민속지학자, 민속학자는 현장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연구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면담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부터 미래에 대한 신념을 탐색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Briggs 1986). Kvale(1984)은 질적 연구 면담의 목적을 “기술된 현상의 의미 해석과 관련해서 피면담자의 생활세계 묘사의 수집”이라고 표현했다. Grimshaw(1969)와 Cicourel(1964)은 면담이 단순히 유용한 연구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합당한 연구 주제로 간주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표본집단의 인식 탐색을 위한 신뢰성 높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심층면담을 수행하는 질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심층면담은 이용자 각 개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

보고, 그로 인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 탐색을 목표로 한다. 면담은 2018년 5월 한 달 여 간에 걸쳐 서울 시내 및 근교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면담 초입에 피면담자에게 구두로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전사한 녹취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녹취록 작성 시 면담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피면담자에게 유선으로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피면담자 11인은 평균 연령 36.9세의 청장년층의 에코 세대로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 대비이용자는 3대 8로 비이용자가 전체 비율의 약 72%를 차지한다. 비이용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비율을 대등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며 탐색적 연구의 특성상 결정적 변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남녀 비율은 각각 6:5인데 여성이 전체 비율의 약 54% 정도로 과반수를 약간 넘는다. 전원 4년제 대학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미혼층이 전체 비율의 약 82%를 차지한다. 피면담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약은 <표 1>과 같다.

3.2 피면담자 특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대 개념은 Kertzer(1983)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시기 출생 집단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박재홍(1995)도 역시 코호트적인 시각에서 세대를 “동일한 문화권에

〈표 1〉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문화프로그램	ID	성별	출생년도	학력	직업	혼인여부	거주지
이용자	A	여	1979	박사	회사원	미혼	경기도 과천시
이용자	B	여	1983	석사	주부/학생	기혼	경기도 용인시
이용자	C	여	1979	학사	회사원	미혼	서울시 송파구
비이용자	D	남	1984	석사	회사원	미혼	서울시 서초구
비이용자	E	남	1984	박사	연구원	미혼	서울시 마포구
비이용자	F	여	1985	석사	프리랜서	미혼	서울시 서대문구
비이용자	G	여	1981	학사	주부	기혼	경기도 성남시
비이용자	H	남	1988	학사	회사원	미혼	인천시 미추홀구
비이용자	I	남	1984	석사	자영업자	미혼	경기도 평택시
비이용자	J	여	1978	박사	교수	미혼	서울시 관악구
비이용자	K	남	1979	학사	프리랜서	미혼	서울시 마포구

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사회화)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서, 의식구조, 행위유형, 생활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세대 개념에 의거하여 에코 세대로 명명한 피면담자로부터 상기 열거한 바와 유사한 집단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피면담자 모두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계층으로서 높은 미혼 비율을 보이는 등 일반적으로 에코 세대의 특징이라고 간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또한 어려서부터 도서관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평소 도서관 이용이 비교적 일상화된 부류이며 책과 독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피면담자가 복기하는 도서관 경험을 기반으로 할 때, 이들 대부분이 90년대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기점은 대략 2000년 전후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학습공간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학습공간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

및 독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더해지면서 한층 입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전까지 공공도서관 구간별 일반 열람실 설치율이 평균 90%를 상회할 정도로 보편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 개관한 489개 관 중 35.2%(172개 관)가 일반열람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화관광체육부 2017).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자유) 열람실이 개인독서실과 다를 바 없는 공부방으로 사용되면서 공공재적 성격의 약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었고 자료수장 및 지식정보 서비스 중심의 공간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한다(윤희운, 김일영 2018). 공공도서관을 학습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2000년대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면, 어린이 이용자와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응축되기 시작한 어린이를 위한 독서와 도서관 서비스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김종성 2013). 2003년 시민 단체인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과 MBC

TV 프로그램인 <느낌표>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추진했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이용훈 2006). 한편, 2001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사회단체와 결탁하여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출범한 이래, 2002년 '책 읽는 가족', 2003년 북스타트 운동 및 '한 책, 한 도시' 운동,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범국민 독서 진흥 강화' 사업, 2006년에 제정된 『독서 문화진흥법』에 이르기까지 90년대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도서관을 주축으로 한 독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 에코 세대가 유·청소년 시절 경험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도약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를 거슬러 대출과 학습목적에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던 9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3 자료 분석

질적 연구는 원천적으로 해석적이므로 자료 수집 이후 연구가는 계속 참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전체 그림을 발견하는 단초로서 그 연구 가치가 있다(Christensen et al. 1975). Briggs (1986)가 제시하는 질적 연구의 면담 분석 방법은 면담을 전사한 녹취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화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녹취록에 기반하여 각 참여자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강조했던 주요 테마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면담 구조를 재도식화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해석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담 내용이 담고 있는 피면담자의 공공도서관과 문화프로그램 인식에 대한 전체 그림을 담아내고자 녹취록에 근거하여 담화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문화프로그램의 개념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삼았다. 표집 집단 전원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로 통일시켰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경험이 한 적이 있으면 이용자로 간주하였다.

이때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제2조 4항)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해당 기관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정의와 달리, 김기영과 최윤희(2012)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특성에 기초하여 관계범류보다 유연한 관중 구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자발적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 스스로를 위한 도서관으로 정의된다. 이는 강제적 정보요구라는 특성을 지닌 학교도서관 이용자(Gross 2001; Limberg 2007; Li and Belkin 2008),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아니라 주로 조직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전문도서관 이용자와는 대비되는 특성이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비이용자 E와 비이용자 J는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이후로는 공공도서관 경험이 단절되어 있으나 대학 내 도서관을 자발적 정보요구 해결을 위해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비이용자 I는 주로 전문도서관인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만 본인의 업무적 필

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세 명의 피면담자 모두 김기영, 최윤희(2012)의 관중 구분에 따라 별도의 구분 없이 나머지와 동일하게 공공도서관 이용자로 범주화한 뒤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비이용자로 하위 구분하였다.

4. 분석 및 논의

4.1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 간의 참여 동기 및 경험의 깊이는 각기 상이하므로 공통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식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문화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응답을 전부 종합하였을 때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공통된 문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콘텐츠 퀄리티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므로 금전적인 부담이 없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피면담자들 역시 무료의 장점에는 공감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공기관 주관이므로 최소한의 퀄리티는 보장될 거라는 신뢰감을 느끼는 한편,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프로그램보다는 완성도가 크게 높지 않을 거라는 자가적 판단을 하게 되고 이는 만족도의 역치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매번 신청에 실패하는데도 계속 신청하려는 이유는) 그냥 값이 싸요” - 비이용자 G

“공공도서관 수준은 다 높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검증된 강연을 한다거나...일단 무료니깐... 큰 기대가 없으니 만족도가 괜찮았어요...공공도서관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서 무료인 게 엄청 크죠...막 내가 애들 데리고 내가 애한테 진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문화를 접하게 해주고 싶은 데 콘텐츠 자체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화한다는 면에서 무료면 더 좋죠” - 이용자 B

그러나 아무리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본인의 이용 목적과 취향에 부합하지 않다면 의사결정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다. 이는 이전 기성 세대와 비교하여 본인의 주관과 개성이 확실한 에코 세대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성으로도 해석된다. 피면담자 대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콘텐츠라면 얼마든지 이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실제로 이들 모두 유료 독서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중이었다. 비단 무상 제공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은 피면담자 전반에 팽배한 공공기관에 대한 회의감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서관이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을 거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 거 같아요...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제가 관심 있어 하는 곳으로 가지 굳이 공공도서관을 확인할 거 같지 않고...뭘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를

(공공도서관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비이용자 E

“(무료기 때문에 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편향도 좀 없지 않고요...그리고 무료기 때문에 ... 만약 그 시간에 이제 왔는데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어서 왔는데 그게 만약...무료...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실망할 거 같고...공공기관에 속하는 거잖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로...그리고 거기서 사실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아직 그런 확신이 없어서...” - 비이용자 H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할 목표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통념에 기반하여, 공공도서관 역시 이러한 공공기관의 범주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낮은 기대감은 이용의 불균형을 되먹임하는 기제로 작용하는데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는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이므로 퀄리티가 다소 불만족스럽고 경험이 유쾌하지 않아도 이용을 지속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반면, 문화프로그램 비이용자의 경우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대감으로 인해 선뜻 이용을 꺼리는 양상을 보였다.

2) 연속형 문화프로그램 육성의 필요성: 문화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단발성 이벤트성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성도 높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지속성 높은 문화프로그램

개설 및 정착을 강조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커뮤니티를 응집시키는 플랫폼 구축의 시발점으로 기능하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응답자 모두 특정 도서관에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세부 관련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립도서관에서 위원회 활동했던 비이용자 K도 이 지점에 공감하며 특히 도서관에서의 연속강의가 적은 이유가 단발성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더 적합한 까닭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성과 측정 지표로서 정량적인 개념의 이용자 수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 반영된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 이게 당일..단발성 프로그램이면 안 된다 이걸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시작했으면 그게 사람들한테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너무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하나를 꾸준히 그 도서관의 약간 시그니처 프로그램처럼 있으면 좋겠다...언제 가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점점 스며들면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될 거 같아요”

- 이용자 A

“근데 강연 하나 하고 그냥 그러면 강연만 듣고 흩어질 뿐이지...그렇게 모인 사람들이...계속 지속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지역의 커뮤니티를 거기서 계속 만드는 방식으로” - 비이용자 D

“그니깐 좀 전문성이 있게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면 한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강좌가 아니고 이거

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그런 거를 뭐 한 하나라도 강좌를 특화시켜 놓으면 도서관에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도 있을 거 같고” - 비이용자 G

저는 강연이나 연주회나 개인적으로 일회적인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웃음) 어떻게 뭐 정기적으로 한달이면 두달이면 두달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보다 근데 ...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 비이용자 J

근데 제가 봤을때 연속 강의가 일회성 강의가 더 많은거 같아요 지금 좀 핫한 유명한 사람들 저자들이 일회성으로 하고 연속강의는 그 00 선생님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그런데 연속 강의를 기획하고 끝까지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지닌 도서관이 많지 않아서...도서관이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 연속 강의는 적합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도서관 입장에서의 거기(연속형 프로그램)에 투여하는 역량은 되게 많은데 투여하는 역량이 똑같다고 한다면 결과가 효과적으로 들어나는 쪽은 일회성 강연 그쪽이 더 낫지 훨씬 더 효과가 더 많지...이건 짐작인데 (웃음) - 비이용자 K

4.2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비이용자의 인식 공유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비이용자 모두 다음의 공통된 측면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및 운영관리 실태를 인식하고 있

었다.

1)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피면담자 다수가 도서관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일종의 안식처로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서관은 공중에게 개방되고 규범 기제가 작동하는 공공장소로서 허버마스의 구분에 따르면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내밀한 공간처럼 안락함을 느낀다는 역설적인 묘사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한 층위 더 나아가 도서관 고유의 장소적 특성을 환기한다.

“(회사)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가면 거기서 이제 나만 있는 공간이니까 그게 되게 참 편한 거 같아요...점심시간에 그렇게 쉬다 가는 거조차 너무 힘들거나 피곤한날은” - 비이용자 D

“도서관은 그냥 편히 가서 독서하며 쉬고 싶은 곳” - 이용자 A

“도서관은 항상 그냥 마음이 편한 거 같아요 가면...그 책 사이에 그냥 둘러싸여 있고 그냥 내가 아무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에 평안도 얻을 수 있는...그런 공간인 거 같아요” - 비이용자 G

피면담자가 표현하는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적 특성은 ‘장소성(placeness)’의 개념으로 치환 가능하다. Relph(1976)는 공간이 추상적, 기능적, 물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장소는 구체적, 해석적, 미학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개념 정의를 하였다. 즉 장소가 추상화된 개

님이 아니라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으로서 물리적 실체와 지속적인 활동으로 채워진 공간으로서 해석하였다. 장소가 인간의 인식 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인지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최막중, 김미옥 2001).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비이용자 모두 공통으로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건은 이용편리성이며, 이는 곧 물리적인 접근성 및 심리적인 만족도와 직결된 공간성으로 구분된다. 도서관의 장소성은 특히 접근성과 이용편리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① 접근성: 피면담자 11인 모두 거주지와 도서관 간의 접근성이 이용 행태를 결정짓는 변수라고 응답했다. 도서관이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이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이용을 중단했다. 도서 대출은 물론 문화프로그램 참여도 일단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굳이' 이용을 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장소 가치 인식은 특정 장소 혹은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나 활동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개개인의 인식을 뜻하므로 물리적 거리보다는 기회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간 소비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은 도서관이 가까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멀.. 멀면 굳이 찾아가진 않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접근성이 편해야 하는데 저 같아도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이용을 되게 자주했거든요 조금

만 멀어져도 제가 굳이 거기에 찾아가 이유를 못찾겠더라고요” - 이용자 B

“근데 (○○도서관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가기가 제가 사는 데가 서대문인데도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한 두어 번 가다가 여기는 차가 없으면 진짜 못가겠다 싶어서 안 가요” - 비이용자 F

② 이용편리성: 피면담자 11인 모두 접근성 못지않게 공간적 쾌적함과 편의성을 강조했다. 독서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실내 환경 및 식당, 탁아, 주차 등 제반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가 도서관의 이용만족도의 판단 기준이자 이용 동기를 부여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피면담자 다수가 이용편리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서관 서비스를 관심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시간과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부러 도서관을 찾아가 이유를 찾지 못했다.

“도서관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엄마들도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 거기 안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텐데 지금은 아기 데리고 가면 눈치 보이는 데니깐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일부러 정보를 찾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 이용자 B

“(도서관 인테리어가) 어떤 사람을 끄는 데 사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편한.. 저는 편안함 포근하고 이런 게 도서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용자 A

“여기가 교통도 편리하고 ○○ 어린이 도서관이

약간 애들 시설도 잘돼 있고...도서관의 소파가 중요해요” - 비이용자 G

“보통은 국회도서관을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조금 더 쾌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용하기도 편하고” - 비이용자 I

“어느 정도 잘 해놓으면 충분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거고...사실은 일단은 공간이 주는 매력들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또 방문을 하는 거니깐...” - 비이용자 H

2) 공공도서관에 대한 가치인식: 피면담자 대다수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충분한 동기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효용을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모두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및 교양 수준을 위해 더 많이 건립되고 향유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도서관이 주어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같다는 공통된 지적을 했다.

“제가 원하는 강연회는 다른 데도 충분히 있으니 간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어..얘기하다보니깐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별로 매력적인 강연하는 건 경쟁력이 없을 거 같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인거 같고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냥 올 수...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 이용자 B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별로 그러니깐 도서관에 굳이 올 요인도 없고 위낙에 재미있는 행사 이런 거는 도서관이 아니어도 많이들 하고 있으니깐...모두를 위한 장소는 맞지만 지금은 책과 관련된 아니면 뭐 약간의 그 협소한 그런 지식과 어떤 관련된 이벤트들 활동에 관심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장소인 거 같아요” - 비이용자 F

“서울은 그런 종류의 문화행사들이 많다보니깐 굳이 도서관에서 하는 걸? 그니깐 일종의 뭐랄까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 비이용자 E

“근데 이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무엇이 한계인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 포텐셜을 가지고 잘하는 거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알 수 있고..보이고..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 비이용자 D

“네 (책이 있는 곳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문화의 중심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도..물론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지만” - 비이용자 I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과 장소성을 결부시켜 연구한 사례가 거의 드문 가운데, 이정호(2011; 2012)는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를 고찰하고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장소애착이 장소가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Feldman(1990)은 장

소애착을 인간의 지리적인 환경(setting)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심리적 태도나 행동적 경향으로서 개인의 일정 장소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소애착도가 높다는 것은 그 장소가 사람에게 큰 의미를 주고 가치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윤유식, 박용섭 2005), 장소에 대한 가치 인식과 애착심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피면담자 대다수가 도서관이라는 장소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 변수로 이용편리성과 접근성을 꼽는 한편, 도서관의 이용편리성이 접근성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대한 애착심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심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서에 대한 인식 부족: 사서는 장서 및 제반 시설과 함께 도서관의 3대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피면담자 다수가 사서의 존재를 도서 대출과 도서 정리에 한정 지어 단순노동자 정도로 규정하였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근본 취지는 사서가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오락과 계몽, 교육활동이지만 현재 사서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주로 외부 강연자나 진행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사서의 역할이 주로 외부 인력을 섭외하고 관리하는 행정 지원 차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문화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사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응답자들이 가진 사서에 대한 낮은 인식은 표면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서의 모습이 항상 단순반복적인 대출/반납/정리라는 데 기인하며, 이러한 인식 부족은 사서가 책에 둘러싸여 한가롭고 여유로운 직업일 것이라는 낭만적 이미지로까지 결부되고 있었다.

“그냥 루틴한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사서 하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내가 원하는 책 실컷 보고 별로 안 힘들거 같아서...너무 힘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약간 사서 같은 느낌이에요” - 이용자 B

“책을 찾아놓고 찾아주는 사람?” - 비이용자 F

“사서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약간 좀 수동적이고...뭘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모습이 잘 안보이고” - 비이용자 E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직 저한테...아예 모르는 분들” - 비이용자 H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뭐랄까 수납? 그니깐 뭐 이렇게 바코드 찍어주시고 해주시는 분은 아닌 거 같은데...책정리 하시고 요정도의 역할은 아니신 거 같은데 사실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뭐랄까 네 지금 아 뭐 뭔가 전문적인

일을 분명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책 대출 바코드 찍고 이러시는 일은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해도 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 비이용자 I

“근데 되게 매력적인 직업인 거 같아요. 일단은 책에 둘러싸여서 시간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깐” - 비이용자 G

4)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피면담자 모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찾고 애용하는 사람에게만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혜택이 집중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도서관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주지하고 있었으나 상세 정보에 노출되는 경험적 확률이 적고 획득 경로 역시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홍보성 정보는 관내 게시판이나 포스터, 건물 외부에 걸린 플랜카드, 메일링 서비스 등의 발신형 일방향 형태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자연스럽게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정보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한 정보 제공 활동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는 데 피면담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도서관이 홍보에 미흡하다는 일부 응답도 있었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피면담자들의 경우 도서관 나름의 홍보 활동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바이럴과 플랫폼 기능이 대체를 이루는 현재 홍보 경향에는 맞지 않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효용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 과정에서도 피면담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인의 추천이나 바이럴이 주요 변수임을 확인했고 도서관에서도 바이럴 홍보 효과를 재고해 봐야 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정보를 거의...모르게 된 이유가 도서관을 좀 더 덜 가게 되니깐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정보도 상대적으로 덜 접하게 되고 그중에 또 가고 싶을 법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게 되니깐 안가게 되고, 알려주는 건 아니니깐” - 비이용자 D

“저는 어쨌든 ○○ 도서관 프로그램에 백프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더 못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자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용자 A

“도서관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엄마들도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 거기 안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텐데 지금은 아기 데리고 가면 눈치 보이는 데니깐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러 정보를 찾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뭐가 하는지 정말 부지런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안 하게 되니깐(정보를 안 찾게 되니깐) 그럼 면에서 도서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 이용자 B

“굳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지 않으니깐 뭐가 있는지 모르죠” - 비이용자 D

“도서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사람은 코어멤버에 거의 한정될 거 아니에요” - 이용자 C

“도서관 홈페이지를 뭔가 구독을 하고 맨날맨날 들어가보지 않는 한 도서관에서 뭘 한다 이게 홍보가 좀 덜 되는 거 같아요” - 비이용자 F

“도서관 홈페이지 막 들어가서 찾아보고 하는 경우는...흔치 않은 거 같아요” - 비이용자 H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을 검색하러 들어가는 건데 팝업창이 너무 많이 떠요 사실 도서관에서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알려줄게 그만큼 많으니깐 팝업창이 뜨는 거잖아요 그니깐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 이용자 C

“도서관이 홍보를 어떻게 더 해야 하지? 홍보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맥락을 알아야 할 거 같아요...제가 개인적으로 좀 (홍보가) 과하다고 느꼈던 게...” - 비이용자 K

피면담자 모두가 공공성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고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데 동의했다.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되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도서관 비이용자는 정보의 소외로 말미암아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자의든 타의든 도서관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이용자 계층까지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표방하는 공공성

의 훼손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도서관의 이용도 만족도를 저해하고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지점이기도 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해결책 강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공공성이니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취약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면에서 뭐 접근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 이용자 B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접근이 쉬어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도서관들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거 같아요...공공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야 하고 많이 찾아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니즈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약간 특수 시설 같은 느낌? 음...먼저 다가가지 않고 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 이용자 A

“모두를 위한 장소는 맞지만 지금은 책과 관련된...활동에 관심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장소인 거 같아요” - 비이용자 F

“네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더 다채롭게 조금 더 문턱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즐길거리 배울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 비이용자 I

5. 결론 및 고찰

데이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비이용자 모두 도서관에 대해 유사한

기대 수준 및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는 문화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도서관계 동향과 달리 문화프로그램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결정짓는 변수라고 판단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문화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는 모두 공공도서관을 “필요한 책을 빌리는 곳”, “책을 빌리는데”, “편히 가서 독서하며 쉬고 싶은 곳” 등 책과 관련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규정하였다. 이는 도서관을 인식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다름 아닌 책이며 도서관의 정체성이 문화적 기능보다는 장서에 더 치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피면담자의 거주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표본 집단의 특성을 미루어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이나 도서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보편적이라고 잠정적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여부가 공공도서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원인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도서관 이용자인 피면담자들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참여여부는 문화프로그램의 인지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라기보다는 필요가 없거나 자신의 요구와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참여자와 비이용/비참여자간의 인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 인식을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참여여부보다는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공공도서관 인식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의 미미한 영향이 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특성이 도서관마다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면담자 중 문화프로그램 이용자가 참여한 문화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며, 또한 그 지역도 서로 다르므로 문화프로그램 구성요소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면담자 중 이용자가 3명으로 소수에 머무르고 있어 구성요소의 특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떠한 형식의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용자에 대한 사서의 노출이 공통으로 배제되어 있어 사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명확하게 그 영향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 공공도서관에서 특성 차이가 뚜렷한 몇몇 문화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집단 내 인식의 일치 및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공공도서관과 여타의 기관 간의 문화프로그램의 차별화에 대한 문제이다. 피면담자들은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무료인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과 차별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 이전에도 도서관계에서 기획의 무방향성 및 특성화 미흡(조찬식 2008), 타 기관과의 프로그램 주제 중복(감미아, 이지연 2013), 그리고 인문학 강좌

가 범람하는 시류에의 편승(윤희운 2016)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도서관만이 가지는 문화프로그램은 어떠한가 하느냐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다른 기관과 차별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의 주제인가, 형식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일찍이 광철완 외(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미아와 이지연(2013)은 타 기관과의 문화프로그램 주제의 중복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주제/내용과 형식을 구분해 보았을 때 무엇을 통해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면담에서 피면담자들이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한 답변에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난 표현은 수준, *퀄리티*, 질 등이었다. 한편,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책과 관련된 공간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책과 관련한 공간인 도서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음을 함축하며,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과 연계되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의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문화프로그램의 성격을 도서관과 좀 더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에 도서관 정체성 부여는 구체

적으로 도서관의 요소인 장서 및 사서와의 연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사서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일상에서 보이는 모습 및 문화프로그램에서 사서의 노력이 적음을 앞서 검토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서와의 연계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장서와의 연계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는 책과 연관된 활동을 문화프로그램화 하는 것으로 현재 다수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도서의 성격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형식이다. 다른 하나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에 장서 및 사서의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문화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자료 입수를 통한 장서 개발 및 일시적 전시(테마도서 전시, 이벤트 컬렉션), 그리고 이러한 장서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를 연결하는 정보서비스의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문화프로그램에 도서관의 성격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문화프로그램과 도서관의 사서 및 장서와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공도서관 현장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이에 대한 학계에서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계가 좀 더 밀접하고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차별성은 이러한 도서관 내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 내의 문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위

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우선 현재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적 목적과 연관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국가의 문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지역의 도서관을 통한 문화적 요구와 수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도서관과 타기관을 차별화하여 인식하지 않는 원인은 실제로 그들 간에 차이가 없고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화적 사회활동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이 더욱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기관별 역할 혹은 지리적 구역 등을 분담하거나 기능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역 시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협치는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상황에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압박을 받는 지방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획득 압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에 경쟁 논리를 도입할 때에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할 여지는 줄어들기 쉽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실제로 지원을 받는 지역의 도서관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지원을 통한 활동 형식 및 내용뿐만 아니라, 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도 좀 더 다양하고 고객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에코 세대의 인식 탐색을 통해 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문화프로그램에 도서관의 정체성이

희박함을, 도서관의 사서 및 장서 등의 요소와 문화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인식되지 않음을 파악하고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다른 문화기관의 문화프로그램 간의 차별성 획득 및 도서관 사서 및 장서와 문화프로그램의 연계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문화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검토해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으며, 도서관 현장 및 문헌정보학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계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및 결과 검토까지의 전 단계에 있어 긴밀하고도 빈번한 협력이 요구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이 지원을 받는 지역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까지 피상적으로만 접근하였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도서관 정체성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위한 검증이 요구되나, 이 세부 분야의 기존 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양적 연구를 위한 검토 요인들을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의 인식을 분석하는데에 유리한 비구조화 심층면담을 통한 탐색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상학에 기반을 둔 비구조화 심층면담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문화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 내용을 통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용자와 시민의 다면적 특성을 모두 담아내는 데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요구되는 양적 연구에서도 동일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 이전에 다면적 특성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심층면담 이외에 다른 질적 방법, 예를 들면 참여관찰과 같은 민속지적 연구 방법 등을 적용한 질적 연구가 더 추가될 필요

도 있다. 이는 어쩌면 여태껏 시도를 찾지 못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에 기반한 문화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실증적인 연구 진행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연구와 현장과 학계의 협의, 그리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감미아, 이지연. 2013.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문화프로그램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197-215.
- [2] 광동철. 2005.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69-91.
- [3] 광철완 외. 2009.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97-208.
- [4] 권남익. 1996. 『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5] 김기영, 최윤희. 2012. A Suggestion of Criteria for Categorizing Libraries into Types: Linking between Library and Information. 『정보관리학회지』, 29(1): 395-404.
- [6] 김도연. 1998.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고찰: 아동 및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7] 김수경. 2006.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235-263.
- [8] 김은정. 1995.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9] 김종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51-75.
- [10]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339-360.

- [11] 노동조, 송유안. 2011.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 및 선호도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75-299.
- [1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세종: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3]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14] 문화체육관광부. 201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8. 6. 24.]
 <<https://www.libsta.go.kr/libportal/main/main.do>>
- [15] 박래은. 2016.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6]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15-339.
- [17] 박성우. 2016. 실행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39-358.
- [18] 박은정. 2000. 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서관 이용도와 인식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0년 8월 17-18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교수연구관: 227-230.
- [19] 박재흥.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FAL), 651-683.
- [20] 심효정, 이용훈. 2003.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공교육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153-177.
- [21] 안인자, 박미영. 201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79-301.
- [22] 윤유식, 광용섭. 2005. 지역주민의 장소애착심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4(2): 511-525.
- [23] 윤희운, 김일영. 2018. 도서관 직원 및 이용자의 일반열람실 인식도 분석: 경북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1-22.
- [24] 윤희운. 2016.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담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1-20.
- [25] 이경민. 2003.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127-151.
- [26] 이소연. 200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3-43.
- [27] 이용훈. 2006.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99-113.

- [28] 이정미. 2014. 서울시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유형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131-152.
- [29] 이정호. 2011.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장소애착이 장소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09-234.
- [30] 이정호. 2012.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53-278.
- [31] 이혜윤, 이지연. 2014.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참여와 도서관 이용의 관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277-297.
- [32] 장덕현. 2014.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73-192.
- [33] 장우권. 2009.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의 관리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71-292.
- [34] 조찬식. 2008. 서울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실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171-188.
- [35] 최막중, 김미옥. 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대학로와 로테오 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6(2): 153-162.
- [36] 최홍식, 서진순. 2009. 전북지역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분석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227-242.
- [37]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 [38] 홍민희, 남태우. 2004.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주부 참여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2): 117-139.
- [39] 홍희경. 2008. 『도서관 특성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40]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219-244.
- [41] Aabø, S., Audunson, R. and Vårheim, A. 2010. "How Do Public Libraries Function as Meeting Plac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1): 16-26.
- [4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Strategic Plan. [online] [cited 2018. 6. 24.]
<<http://www.ala.org/aboutala/sites/ala.org.aboutala/files/content/governance/StrategicPlan/Strategic%20Directions%20June%2028%202015.pdf>>
- [4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Case studies: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online] [cited 2018. 6. 24.]
<<http://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case-studies>>

- [44] Briggs, C. L. 1986. *Learning How to Ask*.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5] Christensen et al. 1975. *Research Methods, Design, and Analysis*. Boston, MA: Pearson.
- [46] Cicourel, A. V. 1964. *Method and Measurement in Sociology*. New York, NY: Free Press.
- [47] Etter, J. 1994. "Cultural Programs: the Flowering of the Public Library." *Current Studies in Librarianship*, 18(1/2): 18-24.
- [48] Feldman, R. M. 1990. "Settlement-Identity: Psychological Bonds with Home Places in a Mobile Society." *Environment and Behavior*, 22(2): 183.
- [49] Grimshaw, A. D. 1969. Language as Data and as Obstacle in Sociological Research. *Items*, 23(2): 17-21.
- [50] Gross, M. 2001. "Imposed Information Seeking in Public Libraries and School Library Media Centres: A Common Behavior?" *Information Research*, 6(2).
- [51] Johnson, A. C. 2012. "How Do Public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Library Staff and Patr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1): 52-62.
- [52] Kertzer, D.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53] Kvale, S. 1984.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a Phenomenological and Hermeneutical Mode of Understanding."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4(2): 171-96.
- [54] Robotham, J. and LaFleur, L. 1976. *Library Programs: How to Select Plan and Produce Them*. Metuchen, New Jersey, NJ: Scarecrow Press.
- [55] Li, Y. and Belkin, N. J. 2008. "A Faceted Approach to Conceptualizing Tasks in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4(6): 1822-1837.
- [56] Limberg, L. 2007. "Learning Assignment as Task in Information Seeking Research." *Information Research*, 12(1).
- [57]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58] Robertson, D. A. 2005. *Cultural programming for libraries: Linking Libraries, Communities, and Culture*.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59] Rubin, R. E. 1998.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m, Mi-Ah and Lee, Jee-Yeon. 2013.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Programs Offered

- by Public Libraries and Other Regional Public Service Institutions.”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197-215.
- [2] Kwack, Dong-Chul. 2005.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for the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69-91.
- [3] Kwak, Chul-Wan et al. 2009. “A Study of the Model and Program Manual of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97-208.
- [4] Kwon, Nam-Ik. 1996.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Activation of Cultural Event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Gwangju and Chonnam*. M.A. thesis, Chonnam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 [5] Kim, Gi-Yeong and Choi, Yoon-Hee. 2012. “A Suggestion of Criteria for Categorizing Libraries into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395-404.
- [6] Kim, Do-Yeon. 1998. *A Study on the Cultural Program for the Social Education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Child and Youth Culture Program*. M.A. thesis, Kongju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 [7] Kim, Soo-Kyoung. 2006. “The True Meaning of Reading and Operation of Read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235-263.
- [8] Kim, Eun-Jeong. 1995.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 M.A. thesis, Yonsei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 [9] Kim, Jong-Sung. 2013. “Trends Analysis of Children’s Services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51-75.
- [10] Kim, Hong-Ryul. 2004. “A Study on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for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339-360.
- [11] Noh, Dong-Jo and Song, Yu-Ahn. 2011. “A Study on Librarians’ Recognition and Preference for Cultural Programs Between School and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75-299.
- [12]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14-2018*. Sejong: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1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National Survey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nline]

- [cited 2018. 6. 24.] <<https://www.libsta.go.kr/libportal/main/main.do>>
- [15] Park, Lae-Eun. 2016. *A Study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M.A. 6thesis, Yonsei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 [16] Park, Mi-Young. 2007.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Library Reading Through Special Quality Service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15-339.
- [17] Park, Seong-Woo. 2016. "A Study on the Changing Role of Public Libraries by the Case Studies of Community of Pract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339-358.
- [18] Park, Eun-Jeong. 2000.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ultural Programmes in Public Library." I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Management Society*, 227-230.
- [19] Park, Jae-Heung. 1995. "Everyday-life Consciousness and Subculture of New Generation: A Qualitative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9(FAL): 651-683.
- [20] Sim, Yong-Hun and Lee, Hyo-Jung. 2003. "Collaboration with Public Libraries in Facilitating Arts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153-177.
- [21] Ahn, Inja and Park, Miyoung. 2011. "Public Library Multicultural Programs and Improvement Methods Analyzed from Case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9-301
- [22] Yoon, Yoo-Shik and Kwock, Young-Sub. 2005. "Residents' Place Attachment in Evaluating Tourism Destination." *Journal of Hotel Resort*, 4(2): 511-525.
- [23] Yoon, Hee-Yoon and Kim, Il-Young. 2018. "Analysis of Staff and User's Perception of the Separate Reading Room of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1-22.
- [24] Yoon, Hee-Yoon. 2016. "The Discourses on the Humanities Banque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1-20.
- [25] Lee, Kyung-Min. 2003.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Public Libraries Culture Program and Reading Activ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127-151
- [26] Lee, So-Yeon. 2004. "Strategies for Improving 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23-43.
- [27] Lee, Yong-Hun. 2006. "A Study on the Reading Promotion Activities to Expand Social Role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17(1): 99-113.
- [28] Lee, Jeong-Mee. 2014. "A Study on Analyzing and Prospecting for the Future of the Public Libraries' Cultural Program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131-152.
- [29] Lee, Jeong-Ho. 2011. "A Study on the Impact of Users' Place Attachment on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09-234.
- [30] Lee, Jeong-Ho.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53-278.
- [31] Lee, Hye-Yun and Lee, Gee-Yeon. 2014.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Public Librarie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and the Library U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277-297.
- [32] Chang, Durk-Hyun. 2014. "A Research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73-192.
- [33] Chang, Woo-Kwon. 2009.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Practical Use Program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271-292.
- [34] Cho, Chan-Sik. 2008. "A Study on the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171-188.
- [35] Choi, Mack-Joong and Kim, Mi-Ok. 2001. "Empirical Analysis of Components and Economic Values of the 'Placeness': The Cases of Daehak and Rodeo Streets in Seou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6(2): 153-162.
- [36] Choi, Hung-Sik and Suh, Jin-Soon. 2009. "A Study on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Jeonbuk Provincial A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227-242.
- [37] Statistics Korea. 201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Baby Boomer & Eco Generation 2012*. Sejong: Statistics Korea.
- [38] Hong, Min-Hui and Nam, Tae-Woo. 2004. "A Study on the Housewives' Participations of a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Influence Their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2): 117-139.
- [39] Hong, Hui-Gyeong. 2008.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al Plans of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M.A.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Republic of Korea.

- [40] Hoang, Gum-Sook, Kim, Soo-Kyoung and Park, Mi-Young. 2008. "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219-244.

